

#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MPS)의 타당화 및 신뢰도 연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범죄심리과,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희송\* · 홍현기\* · 현명호†

##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Scale (K-MPS)

Hee-Song Kim\*, Hyoen-Gi Hong\*, Myoung-Ho Hyun†

\*Criminal Psychology Div, National Forensic Servic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Scale (MPS). 339 participations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the K-MPS, Psychopathy Personality Scale, Narcissism Personality Scale, Self-Monitoring Scale.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of K-MPS suggested 4 factor structures (Distrust of Other, Amoral Manipulation, Desire for Status, Desire for Control).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of K-MPS show that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itted better than Four Factor Structure, indicating that both MPS and K-MPS were possessed of same factor structures. K-MPS showed a relatively strong positively correlation with Narcissism, Primary Psychopathy, but a relatively weak correlation with Secondary Psychopathy, Self-Monitoring. This result showed K-MPS had high convergence and discriminative validity.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relation with future studied. (Korean J Str Res 2011;19:21~30)

**Key Words:** K-MPS, Machiavellianism, Psychopathy, Narcissism, Self-Monitoring

## 서론

마키아벨리즘(Machiavellianism) 성격의 구성개념은 16세기 정치가 Machiavelli의 실제 이야기에서 파생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 결과 마키아벨리즘은 성취동기가 높아 이를 충

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쉽게 속이고, 사악하고 냉소적이며 교활하고 위선적인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었다(Pandey *et al.*, 1979; Harrell, 1980; Dingler-Duhon *et al.*, 1987; Corral *et al.*, 2000).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조직 내에서의 행동과 관련된 분야인데,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이 높은 사람은 조직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과 조직 활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 해가 되는 행동이나 반생산적인 업무행동(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을 할 가능성이 높고, 기회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Fehr *et al.*, 1992; Fox *et al.*, 1999). 또한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자는 다른 피험자

책임저자: 현명호,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 156-756,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접수: 2011년 2월 15일, 심사: 2011년 3월 10일

게재승인: 2011년 3월 12일

본 연구는 2010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장기 시험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2010-중장기-01).

이 척도는 MPS 원저자 Jason J. Dahling의 허락 하에 연구됨.

와 상호 협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파트너를 배반하는 경향이 있다(Harrell *et al.*, 1976; Wilson, 1996; Gunnthorsdottir *et al.*, 2002). 따라서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자는 기회주의적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이나 파트너에 대한 변절 행동을 자주할 가능성이 높아 조직 내의 효율성을 저해 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에 심각한 피해를 줄 소지가 있다.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조직 내 기밀정보 유출 범죄와도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보 유출과 관련된 범죄자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족하지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를 근거로 정보유출 관련 범죄자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추론해 볼 수 있다(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0). 이 자료를 보면 조직 내의 내부자가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나 신분 상승을 위해 기술 정보 유출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기회주의적이고, 공익보다는 사익에만 몰입하여 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조직을 쉽게 배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부 정보 유출자는 악의적이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Gelles, 2005).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정보 유출 범죄자의 성격특성이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반생산적인 업무행동이나 기밀정보누설과 같은 조직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앞서 이러한 연구의 기초가 되는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마키아벨리즘 척도는 Mach-IV이다. Mach-IV는 Christie *et al.*(1970)가 Machiavelli라는 인물의 성격특성을 Machiavelli의 저서로부터 직접 추출하여 이를 근거로 20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대인관계 전략, 인간 속성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 그리고 추상적인 윤리적 문제라는 세 개의 하위 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Mach-IV 척도는 이후 연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라서 신뢰도의

차이가 상당히 심한 편이다. Oksenberg(1971)은 Mach-IV의 반분 신뢰도가 남자의 경우 .7정도이지만 여자는 .4로 상당히 낮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다른 연구에서도 여자에게서 신뢰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는 등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라서 신뢰도가 크게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다. Geis *et al.*(1981)는 Mach-IV의 반분신뢰도가 .5~.6수준이라고 보고하였고, White(1984)는 내적 일치도가 .46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여 척도 자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Mach-IV는 하위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Mach-IV는 세 가지 하위 구성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척도 점수로 채점이 이루어지고, 하나의 구성개념에는 2문항만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영역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Ahmed *et al.*, 1981). Mach-IV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도 세 개의 영역이 아닌 두 개의 구성개념만이 산출되고 있다(Hunter *et al.*, 1982; O'Hair *et al.*, 198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Mach-IV는 척도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문제로 인해 이를 보완한 새로운 마키아벨리즘 척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Dahling *et al.*(2009)는 Mach-IV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 척도(Machiavellianism Personality Scale; MPS)를 개발하였다. MPS에서는 마키아벨리즘의 성격 특성에 근거하여 타인에 대한 불신, 부도덕적 조종, 통제에 대한 욕구, 그리고 지위에 대한 욕구라는 4가지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하위 구성개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보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상위 구성개념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위의 구성개념 아래 4개의 하위 구성개념이 존재하는 위계적인 관계로 보았다(Fig. 1). Dahling *et al.*(2009)은 MPS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라는 점을 실증 연구를 통해 보고하였다.

마키아벨리즘은 정신병질과 자기애성 성격특성과 함께 공통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세 가지 성격특성을 하나의 성격군으로 묶어 어둠의 3요소(Dark Triad)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서로 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이 보고되고 있다(Kowalski, 2001; Paulhus *et al.*, 2002).

자기애(narcissism)는 우월감, 거만한 행동, 자기를 향한 타인의 관심과 경외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고양된 자기 개념을 의미한다(Benetsch *et al.*, 2004). DSM-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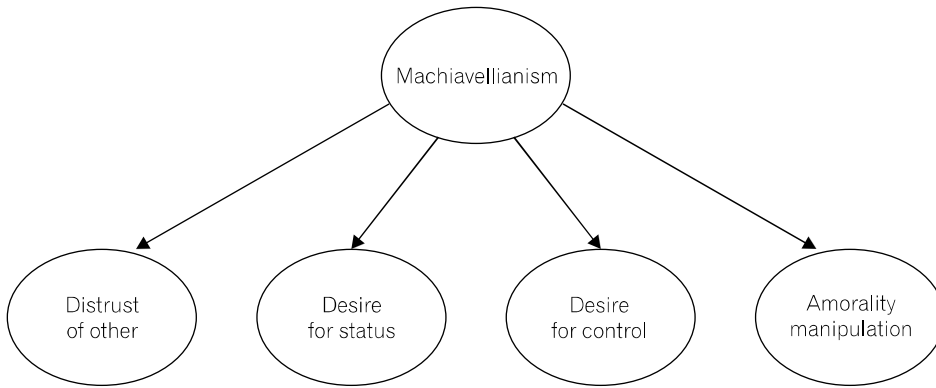


Fig. 1.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the Machiavellianism construct.

(1994)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과도한 자기중심성, 성공과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 특권의식, 착취적인 대인관계, 공감 능력 저하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마키아벨리즘의 성격특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McHoskey, 1995; Kowalski, 2001; Paulhus *et al.*, 2002; Dahling *et al.*, 2009).

다음으로 마키아벨리즘과 정신병질 성격특성 간의 연구에 있어서, 마키아벨리즘과 일차 및 이차 정신병질 성격특성 간의 상관분석에서 두 정신병질 성격특성 간 다소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Skeem *et al.*(2003)의 연구에서 일차 정신병질 성격특성과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의 경우 서로 간의 개념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두 구성 개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하였지만, 반대로 이차 정신병질 성격특성은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과 다소 관련성이 낮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은 일차 정신병질과는 높은 수준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지만, 이차 정신병질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MPS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자기검색(self-monitoring)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자기검색이란 사회적으로 적절한 자기표현 행동을 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 상황적 단서에 따라서 자기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능력이다(Snyder, 1974). 즉 자기검색 수준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 적절하게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인관계 상황에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Dahling *et al.*(2009)의 원 논문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과 자기검색수준 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으

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원 논문에서는 마키아벨리즘과 자기 검색 간에 상관값이 .11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마키아벨리즘과 자기검색 간에 상관이 유의하지 않거나 .2 정도의 약한 정적인 수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risite *et al.*, 1970; Snyder, 1974; Ickes *et al.*, 1986).

Barnes *et al.*(1979)에 의하면 마키아벨리즘과 자기검색이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서로 비슷하지만, 이 둘의 중심기제가 다른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보았다.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인상을 관리하여(impression management) 타인을 조종하고 착취한다고 하였고, 이를 자기중심적인(self-oriented) 동화적 인상관리라고(assimilative impression management) 제안하였다. 이에 반해 자기 검색은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목적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의 인정이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타인지향적인(other-oriented) 조절적인 인상관리라고(accommodative impression management)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이루어진 Ickes *et al.*(1986)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Dahling *et al.*(2009)의 연구 결과와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기검색은 마키아벨리즘과 서로 독립적인 구성개념으로 보는 것 더 타당할 것으로 여겨져 자기 검색 척도를 이용하여 K-MPS의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MPS의 실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P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내적 일치도,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정신병질 성격과 자기애성 성격, 그리고 자

기-검색과의 비교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후속연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재료 및 방법

### 1. 연구 대상

서울 소재 대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이 중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이나 중도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9부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참가자는 남성이 148명(43.7%)이고, 여성이 191 (56.3%)이며, 평균 연령은 21.92 (범위: 18~40, SD=2.70)세였다.

### 2. 측정도구

1) **마키아벨리즘**: Dahling *et al.*(2009)이 개발한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Machiavellism Personality Scale: MP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원 저자에게 메일을 통해 척도의 한국판 개발과 타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연구자 2인과 심리학과 대학원생 2인이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 토론을 통해 수정한 초벌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이후 초벌 번역본을 2개 국어 사용자(영어와 한국어)가 역번역하였으며, 이를 원저자에게 보내 감수를 의뢰했다. 원저자는 이를 MPS 개발 연구에 참여했던 다른 연구자에게 보내 원문과 대조하여 최종 척도를 완성하였다.

MPS는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에 대한 불신(Distrust of Other, 5문항), 지위에 대한 욕구(Desire for Status, 3문항), 통제에 대한 욕구(Desire for Control, 3문항), 비도덕적 조종(Amoral Manipulation, 5문항).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으로 표시되었다.

2) **정신병질**: 정신병질은 Levenson 자기보고식 정신병질 질문지(Levenson Self-Report Psychopathy: LSR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PCL-R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1991)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인 정서적 이탈, 반사회적 성향을 비대상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따라서 이 척도도 두 개의 요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요인 1은 거짓말하기, 정서적 냉담성, 대인관계 조종과 같은 일차 정신병질적 특성을 측정하는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요인 2는 충동성, 조급함, 장기적 목표 부재

와 같은 이차 정신병질적 특성을 측정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여러 연구에서 좋은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Ross *et al.*, 2007), 국내에서는 Lee SJ *et al.*(2007)이 번역하여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3) **자기애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은 Hwang ST(1995)이 성격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DSM-IV (Diagnostics and Statistical Manual for Disorder-IV, APA, 1995)의 진단준거를 보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 중에서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관한 부분인 총 18문항을 발제한 자기애적 성격장애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NPDS의 하위요인은 자기중심성, 응대성/자기칭찬과 주목의 욕구, 과장된 자기지각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전적으로 그렇다’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일치도(Chronbach's  $\alpha$ )는 .68~.88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다.

4) **자기-검색**: 자기-검색 척도(Self-Monitoring)는 Snyder (1974)가 고안한 척도로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Snyder *et al.*(1986)가 18문항의 자기 검색척도를 완성하였다. 국내에는 LEE JI(1988)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나타났다. 본 척도는 예, 아니오로 응답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검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결 과

### 1.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척도(K-MPS)의 신뢰도 및 문항 간 상관분석

1차 문항 선별을 위해 총 16문항을 대상으로 내적 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도덕적 조종의 하위 문항 하나가 제거를 하면 내적 일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15문항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98로 보통 수준이었고, Hotelling's T 값은 1578.815로 문항이 골고루 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 $F(14,325)=108.435$ ,  $p<.001$ ).

### 2.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척도(K-MPS)의 탐색적 요인 분석

내적 일치도 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 선별된 15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aiser-Meyer-Olkin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pattern coefficients and internal consistency on Korean Machiavellian personality scale items.

Item	Factor loading score			
	Distrust of other	Amorality manipulation	Desire for status	Desire for control
13 나는 타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760	-.073	-.013	.050
14 팀원들은 앞서기 위해 시종일관 서로를 중상모략 한다.	.742	.118	-.061	.055
15 내가 일을 수행하는데 어떤 약점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651	.172	.140	.013
12 사람들은 오직 개인적인 이득에 의해서 동기유발 된다.	.623	.147	.128	.113
16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취하려고 계획한다.	.515	.251	.208	.153
3 나는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면 속일 의향이 있다.	.113	.753	.048	.020
1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나는 비윤리적인 것이라도 기꺼이 할 것이다.	.144	.724	.180	.043
4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쟁적인 우위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014	.700	.147	.086
2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위협이 된다면, 나는 그들의 노력을 기꺼이 방해할 것이다.	.238	.633	.133	.122
11 나는 언젠가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046	.166	.845	.087
10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목표이다.	.079	.132	.835	.013
9 지위는 성공한 인생의 좋은 징표이다.	.142	.168	.734	.136
8 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즐긴다.	.186	.158	.066	.797
7 나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즐긴다.	.010	-.036	.168	.797
6 나는 대인관계에서 명령하기를 좋아한다.	.091	.115	-.005	.747
Eigenvalue	2.367	2.228	.2140	1.921
Sum of Squared Loadings (%)	15.778	14.851	14.269	12.809
Cronbach's alpha	.715	.713	.781	.709

(KMO)값은 .796으로 적절한 수준이었고, Bartlett 구형성 검증 통계치는 1271.962로 .001 수준이어서 자료의 상관이 요인분석에 적합하였다. 따라서 주성분분석방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회전 방식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MPS와 동일하게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이 4개 추출되었고, 전체변량의 57.7을 설명하였다. 요인 구조와 요인 부하량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15.78%를 설명하였고, 타인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2, 13, 14, 15, 16). 두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14.85%를 설명하였고, 부도덕적 조종과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 2, 3, 4). 세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14.27%를 설명하였고, 지위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9, 10, 11).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12.81%를 설명하였고, 통제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6, 7, 8).

### 3. 요인 간 상관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MPS의 4요인 간 상관결과와 Dahling *et al.*(2009)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 간 상관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17에서 .41 정도의 상관을 가진 원 척도와 비슷하게 K-MPS는 .22에서 .37 정도의 상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four dimensions of MPS.

Factor	Distrust of other	Amorality manipulation	Desire for status
Amorality manipulation	.23 <sup>a</sup> (.41)		
Desire for status	.37 <sup>a</sup> (.22)	.22 <sup>a</sup> (.36)	
Desire for control	.36 <sup>a</sup> (.30)	.25 <sup>a</sup> (.23)	.25 <sup>a</sup> (.17)

<sup>a</sup>p < .001.

( ): Dahling *et al.*(2009, N=167).

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척도(MPS)의 확인적 요인분석

한국판 MPS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Dahling *et al.*(2009)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요인 구조가 본 결과에서도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공분산 행렬자료를 사용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ML) 추정법을 적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한국판 MPS에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하여 3가지 추정모형의 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Table 3.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of MPS items.

Model	$\chi^2$	df	GFI	AGFI	CFI	TLI	RMR	$\Delta \chi^2$	$\Delta df$
Common factor model	603.737 <sup>a</sup>	90	.783	.711	.568	.496	.050	-	-
Four-factor model	155.802 <sup>a</sup>	84	.940	.914	.940	.925	.025	447.935 <sup>a</sup>	6
Hierarchical model	160.252 <sup>a</sup>	86	.938	.913	.938	.924	.026	4.4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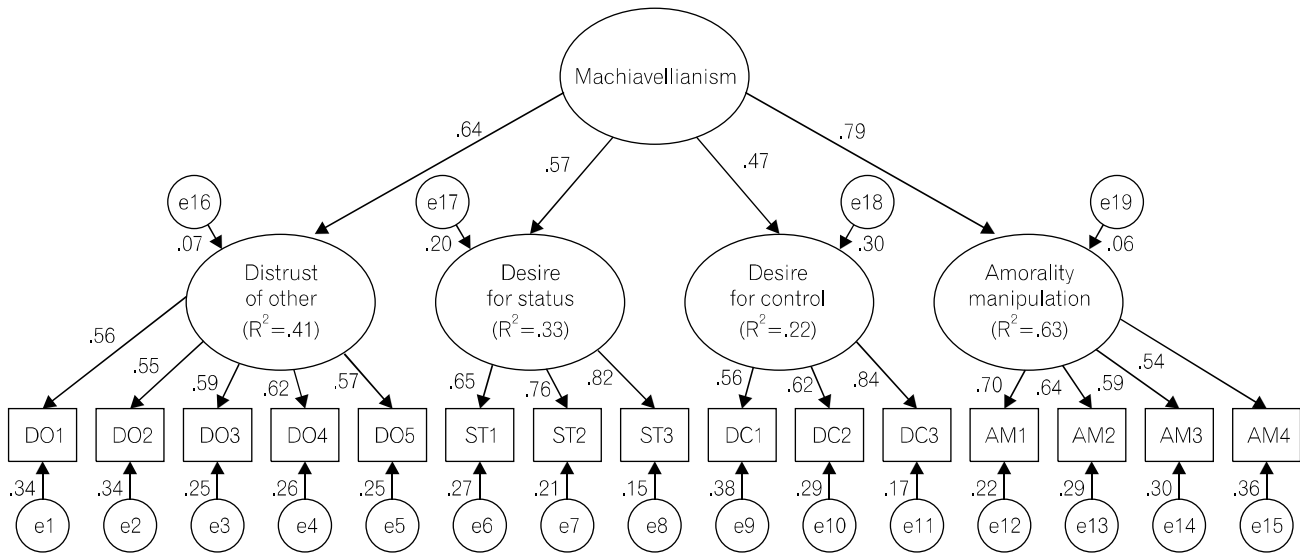
<sup>a</sup>p < .001.

Fig. 2.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of MPS items (Hierarchical model).

첫 번째, 일반요인모델(Common Factor Model)은 모든 문항이 하나의 잠재 구성개념에 부하되어 있는 모델이고, 두 번째 4요인 모델(Four-Factor Model)은 각 문항이 4개의 하위 요인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하위변인 간에 관련성을 가정하는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은 상위의 마키아벨리즘 구성 개념이 4개의 하위 요인에 영향을 끼치는 모델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이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적합도를 함께 고려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chi^2$ , 일반 합치도 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와 조정합치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비교적합도 지수(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y-Lewis Index), 원소평균제곱잔차(RMR: Root Mean Square Residual)를 사용하여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chi^2$ 의 경우,  $\chi^2$  값이  $p > .05$ 수준, GFI, AGFI, CFI, TLI은 .90 이상, RMR은 .05 이하이면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Dahling *et al.*(2009)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요인 구조를 중심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3과 Fig. 2

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요인 모델의 경우,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이 아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요인 모델과 위계적 모델은  $\chi^2$ 이 유의하였고( $\chi^2=155.802$ ,  $p < .001$ ,  $\chi^2=160.252$ ,  $p < .001$ ), GFI, AGFI, CFI, 그리고 TLI이 모두 .900 이상이고 RMR은 .05 이하로 나타나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chi^2$  차이검증 결과, 두 모델 간  $\chi^2$  차이 값이 유의하지 않아서( $\Delta \chi^2(2)=4.45$ , n.s.), 자유도가 높은 위계적 모델이 4요인 모델보다 적합하였다.

## 5. 다른 변인과의 상관 분석

K-MPS와 정신병질척도(LSRP), 자기애성 성격장애(NPDS), 자기감시척도(Self-Monitoring)의 상관은 Table 4에 제시되었다. 정신병질의 경우, 정신병질 총점의 경우, MPS의 각 하위 변인과 .37~.57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MPS 총점과는 .67로 비교적 높은 상관값을 보였다. 특히 요인 1의 경우, MPS 하위 변인 간을 살펴보자면, .35~.58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sychopathy, narcissism, self-monitoring and MPS sub-dimension.

	MPS				
	Amorality manipulation	Desire for control	Desire for status	Distrust of other	MPS total
Psychopathy					
Primary psychopathy	.58 <sup>a</sup>	.35 <sup>a</sup>	.45 <sup>a</sup>	.54 <sup>a</sup>	.72 <sup>a</sup>
Secondary psychopathy	.22 <sup>a</sup>	.22 <sup>a</sup>	.03	.35 <sup>a</sup>	.32 <sup>a</sup>
Psychopathy total	.52 <sup>a</sup>	.37 <sup>a</sup>	.34 <sup>a</sup>	.57 <sup>a</sup>	.67 <sup>a</sup>
Narcissism					
Narcissism total	.47 <sup>a</sup> (.47)	.36 <sup>a</sup> (.36)	.34 <sup>a</sup> (.34)	.27 <sup>a</sup> (.34)	.52 <sup>a</sup> (.55)
Self-monitoring					
Self-monitoring total	.14 <sup>b</sup> (.07)	.15 <sup>a</sup> (.12)	.19 <sup>b</sup> (.06)	-.10 (.08)	.12 <sup>c</sup> (.11)

<sup>a</sup>p<.001, <sup>b</sup>p<.01, <sup>c</sup>p<.05.

SM & Narcissism ( ): Correlation Results of Dahling *et al.*(2009).

수준이었고, MPS 총점과는 .72로 상관이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요인 2와의 상관은 .03~.3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K-MPS 총점과도 .32 수준으로 요인 1에 비해 비교적 상관이 낮았다. 이는 마키아벨리즘이 요인 1과는 높은 상관이 있는 반면, 요인 2와는 상관이 비교적 낮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기애의 경우에는 K-MPS 하위변인과 상관이 .27~.47 수준이었고 K-MPS 총점과는 .5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자기검색(Self-Monitoring)의 경우, MPS 하위변인과 -.10~.19 수준의 낮은 상관을 보였으며, MPS 총점과도 .1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상관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와 Dahling *et al.*(2009)의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때, Dahling의 연구에서는 자기검색과 MPS 하위변인 및 총점 간 모든 상관값이 유의하지 않게 나왔지만, 본 연구에는 MPS 하위 변인 중 하나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계수만을 비교해 볼 때, 두 연구의 상관계수가 거의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차이는 사례수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기검색과의 상관분석 결과 역시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 고 찰

반생산적인 업무행동이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밀정보 유출 범죄와 같은 조직관련 범죄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개발된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Machiavellianism

Personality Scale; MPS)를 국내 실정에 맞게 타당화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내적일치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준거관련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분석해 본 결과, 부도덕적 조종 요인에 속해있는 ‘내가 타인과 대화하는 유일한 이유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라는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서 내적 일치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추가 분석 결과 이 문항은 부도덕적 조종 요인보다는 오히려 타인에 대한 불신 요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타인과 대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타인을 불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타인과 대화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문항의 뜻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도 본 문항이 부도덕적 조종 요인에 있는 나머지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인 부하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문항 번역 상의 문제나 문화적인 차이와 함께 문항 자체가 부도덕적 조종 요인에 적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PS는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 1은 5문항으로 타인에 대한 불신을, 요인 2는 4문항으로 부도덕한 특성과 자신의 목표를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는 특성을, 요인 3은 3문항으로 지위에 대한 욕구를, 요인 4는 3문항으로 주변 상황이나 대인관계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와 유사한 요인구조로서,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한 1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예측했던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ahling *et al.*, 2009).

다음으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요인 모델, 4요인 모델, 그리고 위계적 모델의 모델을 구성하여 적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하위 요인으로 묶여있는 일반요인 모델의 적합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났지만, 4요인 모델과 위계적 모델의 적합도는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4요인 모델과 위계적 모델 중 보다 적합한 모델을 찾기 위해  $\chi^2$  변화량을 비교 분석해 볼 결과 두 모델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위계적 모델의 자유도가 4요인 모델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더 간명한 모델로 보이며, 선행 연구 결과(Dahling *et al.*, 2009)나 이론적으로 볼 때, 위계적인 구조가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척도의 구조 역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신병질척도(LSRP), 자기애성 성격장애(NPDS), 자기감시척도(Self-Monitoring)와 본 척도 간에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신병질과 자기애성 성격장애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병질 척도와 자기애성 성격장애 척도 간에는 .52~.67 정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Jakobwitz *et al.*, 2006; Ali *et al.*, 2009; Ali *et al.*, 2010).

여러 학자는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자기애성 성격은 서로 많은 부분 공통적인 성격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어둠의 3요소(Dark Triad)라고 명명하고 있다(Kowalski, 2001; Paulhus *et al.*, 2002). 이들 간 공통적인 성격특성으로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냉담하며, 이중적 성격,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착취적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과 정신병질, 자기애성 성격 척도간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이 나타난 것은 이론적으로 지지되는 바이며, 상관값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35~.70까지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아울러 정신병질의 경우, 일차 정신병질과 이차 정신병질 성격특성을 분리하여 MPS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했을 때, 일차 정신병질과는 .72, 이차 정신병질과는 .32로 상대적으로 일차 정신병질 성격특성이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

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일차 정신병질과 이차 정신병질 성격특성 간에는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차 정신병질 성격특성은 선천적으로 대인관계 문제와 정서 문제(affective deficit)를 보이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착취적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며,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고, 도구적 공격성을 사용하며, 목적 지향적이고 계획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이차 정신병질 성격특성은 불안 수준과 충동성, 물질사용장애 증상이 높으며, 정서에 있어서도 후천적인 정서적 혼란(affective disturbance)을 경험한다. 또한 반응적 공격성을 사용하고 비계획적이며, 높은 적대감을 나타내고 사회화 수준 또한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Hong HG *et al.*, 2008).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은 타인에 대한 불신,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부도덕적인 조종의지,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타인 통제 욕구,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욕구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는 일차 정신병질적 성격특성과 상당부분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타인에 대한 불신을 제외하고는 이론적으로 이차 정신병질적 성격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차 정신병질과 마키아벨리즘과는 성격적인 특성이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이차 정신병질과는 특성이 다소 다르다고 보고한 Skeem *et al.*(2003)의 연구와 일치한다.

K-MPS와 자기검색(Self-Monitoring)과의 상관은 .12로서 유의하지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였다. Barnes *et al.*(1979)나 Ickes *et al.*(198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마키아벨리즘과 자기 검색 모두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지만, 마키아벨리즘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기중심적인 인상관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검색은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요구나 기대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게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는 타인 중심적 인상관리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K-MPS와 자기검색 척도 간의 상관값이 MPS를 개발할 때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Dahling *et al.*, 2009).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척도가 원 척도를 적절하게 번안하였다는 것과 본 척도가 마키아벨리즘과 자기 검색의 구성개념을 잘 변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Dahling *et al.*(2009)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K-MPS가 적절한 요인구조를 가진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라



는 점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어둠의 3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 보인다. 또한 조직관련 범죄의 위험성을 가진 사람을 초기에 선별하거나 이들에 대한 심리적 평가나 생리학적 평가를 실시하는 예방적 접근과 이들의 성격적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치료적 접근의 기초자료가 되어 실용가능성을 높일 것이라 생각된다.

K-MPS에서는 MPS의 부도덕적 조종에 해당하는 문항이 제거되었는데, 문화적 차이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척도의 수정과 실험적인 검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높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Ahmed SM, Stewart RA (1981) Factor analysis of the Machiavellian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9:113-115.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Washington, DC: Author.
- Ali F, Amorim IS, Chamorro-Premuzic T (2009) Empathy deficits and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in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758-762.
- Ali F, Chamorro-Premuzic T. (2010) Investigating theory of mind deficits in nonclinical psychopathy and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169-174.
- Barnes RD, Ickes W (1979) Styles of self-monitoring: assimilative versus accommodativ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isconsin.
- Bogart LM, Benotsh EG, Pavlovic JD (2004) Feeling superior bu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35-44.
- Christie R, Geis FL (1970) Studies in Machiavellianism.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orral S, Calvete E (2000) Machiavellianism: dimensionality of the mach IV and its relation to self monitoring in a Spanish sample.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3:3-13.
- Dahling JJ, Brian GW, Levy PE (2009)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Machiavellianism scale. *Journal of Management* 35:219-257.
- Dingler-Duhon M, Brown BB (1987) Self-disclosure as an influence strategy: effects of Machiavellianism, and rogyne, and sex. *Sex Roles* 16:109-123.
- Fehr B, Samson D, Paulhus DL (1992) The construct of Machiavellianism: twenty years later. In C. Spielberger & J. Butch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9: 77-116.
-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ox S, Spector PE (1999) A model of work frustration-aggress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915-931.
- Geis F, Moon T (1981) Machiavellianism and deception. *J. Pers. Soc. Psychol.* 41:766-775.
- Gelles M (2005) Exploring the Mind of the Spy. In Online Employees' Guide to Security Responsibilities: Treason 101. Texas A&M University Research Foundation. <http://www.dss.mil/search.dir/training/csg/security/Treason/Mind.htm>
- Gunnthorsdottir A, McCabe K, Smith V (2002) Using the Machiavellianism instrument to predict trustworthiness in a bargaining gam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3:49-66.
- Hare R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arrell WA (1980) Retaliatory aggression by high and low Machiavellians against remorseful and non-remorseful wrongdoe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8:217-220.
- Harrell WA, Hartnagel T (1976) The impact of Machiavellianism and the trustfulness of the victim on laboratory theft. *Sociometry* 39:157-165.
- Hong HG, Hyun MH (2008) A decision-making process and response reversal performance ability of individuals with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endenci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425-442.
- Hunter JE, Gerbing DW, Boster FJ (1982) Machiavellian beliefs and personality: construct invalidity of the Machiavellianism dimension. *J. Pers. Soc. Psychol.* 43:1293-1305.
- Hwang ST (1995) Development of Diagnostic Criteria for Personality Disorder Based on Prototypicality Rating.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Ickes W, Reidhead S, Patterson M (1986) Machiavellianism and Self-Monitoring: as different as "Me" and "You". *Social Cognition* 4:58-74.
- Jakobwitz S, Egan V (2006) The dark triad and normal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331-339.
- Kowalski RM (2001) Behaving badly: aversive behavior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E JI (1988) The Reliability, Validity, Response style Comparison Between Dichotomous Scale and Seven-Point Likert Scale: in Self-Monitoring Scale and Self-Consciousness Scal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J, Gong JS (2007) Characteristic analysis of domestic homicidal behavior based on psychopathy.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13:1-23.
- McHoskey J (1995) Narcissism and Machiavellianism. *Psychol. Rep.* 77:755-759.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11. 1. 18.) <http://service4.nis.go.kr/>

- servlet/page?cmd=preservation&cd\_code=outflow\_1&menu=AA  
A00
- O'Hair D, Cody M (1987) Machiavellian beliefs and social influence.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51:279-303.
- Oksenberg L (1971) Machiavellianism in traditional and Western Chinese students. In W. W. Lambert & R. Weisbro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psychology*: 92-99. Boston: Little, Brown.
- Paal T, Bereczkei T (2007) Adult theory of mind, cooperation, Machiavellianism: the effect of mindreading on social rel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541-551.
- Pandey J, Rastogi R (1979) Machiavellianism and ingratiation. *J. Soc. Psychol.* 108:221-225.
- Paulhus DL, Williams KM (2002) The dark side of normal personality: self-report and behavioral correlat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Ross SR, Molto J, Poy R *et al.* (2007) Gray's model and psychopathy: BIS but not BAS differentiates primary from secondary psychopathy in noninstitutionalized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1644-1655.
- Skeem JL, Poythress N, Edens JF *et al.* (2003) Psychopathic personality or personalities? Exploring potential variants of psychopathy and their implications for risk assessment.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513-546.
- Snyder M (1974) Self 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 Pers. Soc. Psychol.* 30:526-537.
- Snyder M, Gangestad S (1986) On the nature of self-monitoring: matters of assessment, matters of validity. *J. Pers. Soc. Psychol.* 51: 125-139
- White GL (1984) Comparison of four jealousy scal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8:115-130.
- Wilson DS, Near D, Miller RR (1996) Machiavellianism: a synthesis of the evolutionary and psychological literatures. *Psychol. Bull.* 119:285-299.

###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Dahling *et al.*(2009)이 개발한 16문항의 마키아벨리즘 성격 척도 (Machiavellianism Personality Scale: MP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증하였다. 39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K-MPS, 정신병질 성격특성, 자기애적 성격특성, 자기 검색 척도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요인(타인에 대한 불신, 지위에 대한 욕구, 통제에 대한 욕구, 부도덕적 조종)을 지니고 있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구조보다 위계적 요인구조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판 마키아벨리즘 성격척도가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키아벨리즘 성격특성과 관련된 여러 척도와 상관 분석을 통해 타당도를 평가했는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보여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중심단어:** MPS, 마키아벨리즘, 정신병질, 자기애, 자기 검색